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⑰ 고승이란

재화에 무관심했기에…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 고승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두루뭉수리하게 '도가 높은 분'이라고 말한다. 또 불교를 조금 아는 사람은 천신만고 끝에 '화두를 깨친 분'이라고 대답한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들어줄 만하다. 그런데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도 있다.

고승이란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다 보는 분'이라고 주장한다. 부처님께서야 과거를 보는 숙명통, 미래를 보는 천안통을 얻은 분이지만, 과연 그러한 경지까지 간 고승이 정말로 있을까 싶다. 물론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불운하게도 나는 그런 분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길상사의 전신이었던 고급요정 대원각을 법정 스님께 시주했던 김영한 여사가 생각한 고승은 좀 색다르다. 여사가 판단한 고승의 조건은 아주 소박하다. 〈무소유〉를 읽고 감동한 김영한 여사가 미국에서 법정 스님을 만났던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한다. 인(因)과 연(緣), 즉 필요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만났던 것이기에.



일러스트 · 정윤경

김천 직지사에 주석하시던 관응 노스님을 뵌 적이 있다. 내 나이 30살 쯤 되었을 것이다. 그때 스님께서 무슨 말씀 끝에 인과 연을 이야기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사과나무는 인이고, 사과밭은 연이라고 하셨다. 같은 사과 씨라도 평평한 밭과 비탈진 밭에서 자란 사과나무의 사과는 모양이 다르다고 강조하셨다. 밭에 따라 사과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던 것 같다.

법정 스님께서 상도동 약수암에 오신다는 전화를 받고 나는 즉시 그곳으로 갔다. 약수암 큰방에 들어가 보니 나이 지긋한 여성과 감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그리고 법정 스님이 앉아 계셨다. 남다른 내공이 있어 보이는 여성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스님은 듣기만 했다. 요지는 이러했다. '아무 조건 없이 제가 대원각을 내놓겠으니 스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다만 절이 잘 운용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감사 한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 감색 양복을 입은 남자는 감사 후보자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스님은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서시더니 "우리나라에는 고승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신 뒤에 믿음이 가는 분에게 시주하십시오"라고 한 마디 하시고는 나가버리셨다. 그때부터 여사는 2년 동안 사람들이 고승이라고 존경하는 스님들을 찾아가 두루 만나보았다고 한다. 여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에다 여사가 좋아할 만한 조건을 더 붙여 맡겠다는 스님들이 제법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여사는 결국 다시 법정 스님을 찾아와 "감사를 두겠다는 조건을 거두겠으니 받아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하며 당시 1천억 원대의 대원각을 시주했다. 불친절하기 짝이 없었지만 자신의 재산에 정작 무관심했던 법정 스님이기 때문이었다. 여사가 생각하는 고승의 조건이란 바로 그것이 전부였다. 자신의 재산을 받아줄 스님을 기어코 찾아낸 여사의 내공도 녹록치 않은 것 같다.

붓다로살자앱 출시 "수행도 SMART하게"

조계종 포교원 공개… 수행 · 명상 프로그램 탑재

E-book 형식 독경 도우미
사진으로 사경 결과물 공유
유튜브 활용, 명상콘텐츠 제공



조계종 포교원이 개발한 신행운동앱 '붓다로살자' 구동 화면.

조계종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행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붓다로살자' 앱을 출시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1월 15일 "생활 속 신행을 증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신행앱 '붓다로살자'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기존에 존재하는 수행 콘텐츠 외에 몇 가지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먼저 '붓다로살자' 앱은 8가지(참선 · 염불 · 독경 · 사경 · 주력 · 명상 · 108배 · 개인수행)의 다양한 선택수행과 나의 수행기록을 주요 테마로 갖추고 있다. 특히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염불과 주력'은 조계종 의례위원 스님들의 참여로 제작했으며, '참선 및 명상'은 황수경 · 윤소희 교수 등 여타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명상'은 유튜브를 활용해 혜민 스님, 정목 스님, 법능 스님의 음원을 함께 실어 더욱 풍성한 명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한다. '사경'의 경우 앱 화면에 사진 형식으로 사경 결과물을 올리고 다른 이들이 볼 수 있게 돼 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건 자신의 수행 결과물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독경은 우리말 경전을 E-book 형식으로 읽을 수 있게 해 놓았으며 절 수행은 포교원이 지속 개발하고 있는 '마음거울' 시리즈가 탑재돼 돕는다. 또 수행일지를 작성하는 란도 마련돼 있다. 개인수행은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수행 프로그램은 일반인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꾸며졌다.

여기에 나의 수행기록을 다른 수행도반들과 공유할 수 있는 '도란도란 붓다들' 메뉴는 자신의 수행담을 함께 공유해 신행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포교원 측 "앱 개발과 함께 개발진이 템플스테이를 다녀오는 등 불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앱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신행혁신 붓다로살자는 불자들의 삶 속에서 신행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여러 신행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붓다로살자 앱은 현재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붓다로살자'를 검색해 설치하면 즉시 구동할 수 있다.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현재 5천여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을 정도로 인기다. 이번 정식 개통 후 전국 사찰에서 홍보가 진행되며 포교사단 등을 통해 일선 포교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붓다로살자 앱은 모바일 시대를 맞은 불교 신행의 또 다른 변화"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태고종 정상화 위한 초석 박차

새 집행부 인선, 교육기금 18억원 부채상환 투입

총무원 부원장에 성오 스님
교육부원장 등 집행부 인선
교육기금 전용 18억 원 확보

태고종이 종단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틔웠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는 11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31회 임시회를 열고 새 집행부 인선안 동의를 비롯해 종단 부채상환을 위한 교육기금 전용안을 가결시켰다.

종회의원 57명 중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고종 종회는 먼저 새 집행부 인선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총무원 부원장에는 성오 스님, 교육부원장에는 능화 스님, 총무부장에는 정선 스님, 재경부장에는 법정 스님, 문화부장에는 석천 스님, 규정부장에는 혜암 스님, 홍부부장에는 혜철 스님이 각각 임명 동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법규위원장에 서봉 스님, 고시위원장에 원명 스님, 호법원 사무처장에 황봉 스님, 중앙종회 사무처장에 등묵 스님이 임명됐다. 다만 교육부장과 사회부장직은 동의안이 부결됐다.

또한 2013년부터 전 중앙종회의장 혜공 스님이 약정에 따라 보관해오던 18억 여원에 달하는 '종단 교육불사 특별기금'의 종단부채 상환을 결의했다. 태고종은 56억여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어 새 집행부 당면과제로 부채상환을 꼽고 있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종무방침연술에서 "오랜 세월 인습화된 수많은 적폐와 불합리가 온존해 있음을 솔직히 부인할 수 없다. 종단의 암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종단 총화를 실현하고, 각종 제도 및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고종 중앙종회는 개회와 함께 보궐로 추천된 종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연수 인증 프로그램 모집

교육원, 11월 24일까지… 숙박 · 통학 교육 신청 공고

수행 · 교학 연찬 · 전법 중심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11월 24일까지 승려연수교육과정 인증 프로그램을 모집한다.

'승려 연수교육에 관한 령' 6조에 의거해 이뤄지는 인증 제도는 종단 스님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불교계 기관 및 단체가 개설한 교육과정에 대해 연수 인증을 하는 것이다. 인증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스님들은 종단이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다.

교육 내용은 수행, 교학 연찬, 전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2년 이상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숙박교육은 2박 3일 12시간 이상, 통학교육은 1강당 90분 이상으로 총 10강 이상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와 기관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 인증기관은 현재 63개로 매년 1500여 명의 스님들이 인증 교육을 통해 연수 교육을 수료하고 있다. (02)2011-1807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35대 집행부 첫 총무부장 정우 스님

신임 국장단 인사도 마쳐

조계종 제35대 집행부 첫 총무부장에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국장단 진용을 갖추며 본격적인 종무행정에 돌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정우 스님에게 총무부장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정우 스님만큼 공심과 원력을 갖춘 사람도 드물다"면서 "스님이 스님답게 종무에 임해야 한다. 총본산 성역화를 비롯한 종단 불사를 잘 이끌어 주리라 믿는다. 종도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 보람을 주는 불교를 만들어보자"고 당부했다.

이에 정우 스님은 "아침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땐 오늘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한 없이 하루하루 소임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설정 스님은 14일 교역직 국장단 인사를 단행하고 △총무국장 선웅 스님 △기획국장 지상 스님 △재무국장 행관 스님 △문화국장 범종 스님 △사회국장 해공 스님 △호법국장 각승 스님 △조사국장 성본 스님을 임명했다. 또한 상임감찰 성주 스님, 호법과장 선보 스님,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진광 스님,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용주 스님, 수행사서 덕원 스님도 임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11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